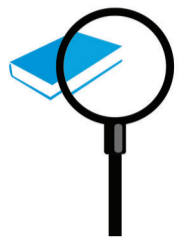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저장들의 명화는 신념·애증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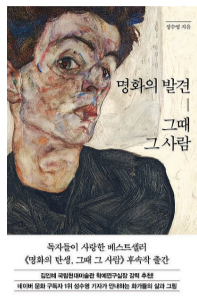
영화의 발견,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그 화가는 항상 여자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그가 인기가 많았던 것은 자상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림 한 점 당 집 한 채 값에 팔릴 만큼 잘나가는 화가였다. 처음부터 그의 삶이 화려하거나 풍요롭지는 않았다. 가난한 집 출신이었다. 정신이 이상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아 했기에 작업을 마치면 임대 아파트로 곧장 퇴근을 하곤 했다.

그는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다. 미술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이름 정도는 알 만큼 구스타프 클림트는 국가대표 천재화가다. 가난한 귀족속 세공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그는 전통 미술학교 대신 상업학교를 택했다. 당시 상황은 벽화와 같은 상업미술의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가 선택은 적중했다.

특히 '옛 부르주아지의 관객석'은 클림트에게 황금공로십자훈장을 안긴 출세작이었다. 그는 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로 부상했는데 고풍함과 우아함, 성적인 요소와 화려함이 깃든 그림은 당



대 부유층의 취향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화가들의 인생과 명화를 담은 '영화의 발견, 그때 그 사람'은 작가의 삶과 시대를 풀어낸 그림 이야기이다. 한 국경제신문 미술 담당 성수영 기자가 저자다. 전작 '영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이 사랑과 예술을 향한 열정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번 책은 선악을 판별하기 어려운 복잡다단한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매주 연재했던 글을 다듬고 보강한 결과물이다. 철부지 청년 에곤 실레를 비롯해 예술에 빠져 가족들은 소홀히 했던 폴 고갱과 폴 세잔, 천재성과 광기의 경계를 오갔던 살바도르 달리 등 여러 화가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3대 천재'들의 라이벌 관계를 조명한 글들도 담겼다.

언급한 클림트는 자유로운 연애를 즐긴 낭만주의자였다. 세 여성과의 사이에 6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성은 에밀리 플뢰게로, 제수의 동생이었다.

에곤 실레의 '짜리 열매가 있는 지화상'은 독특한 분위기를 발한다. 외로움과 무심함, 쓸쓸함 같은 이미지가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돼 있다. 에곤 실레는 오스트리아 빈의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면서 가세가 기울었는데, 원인은 매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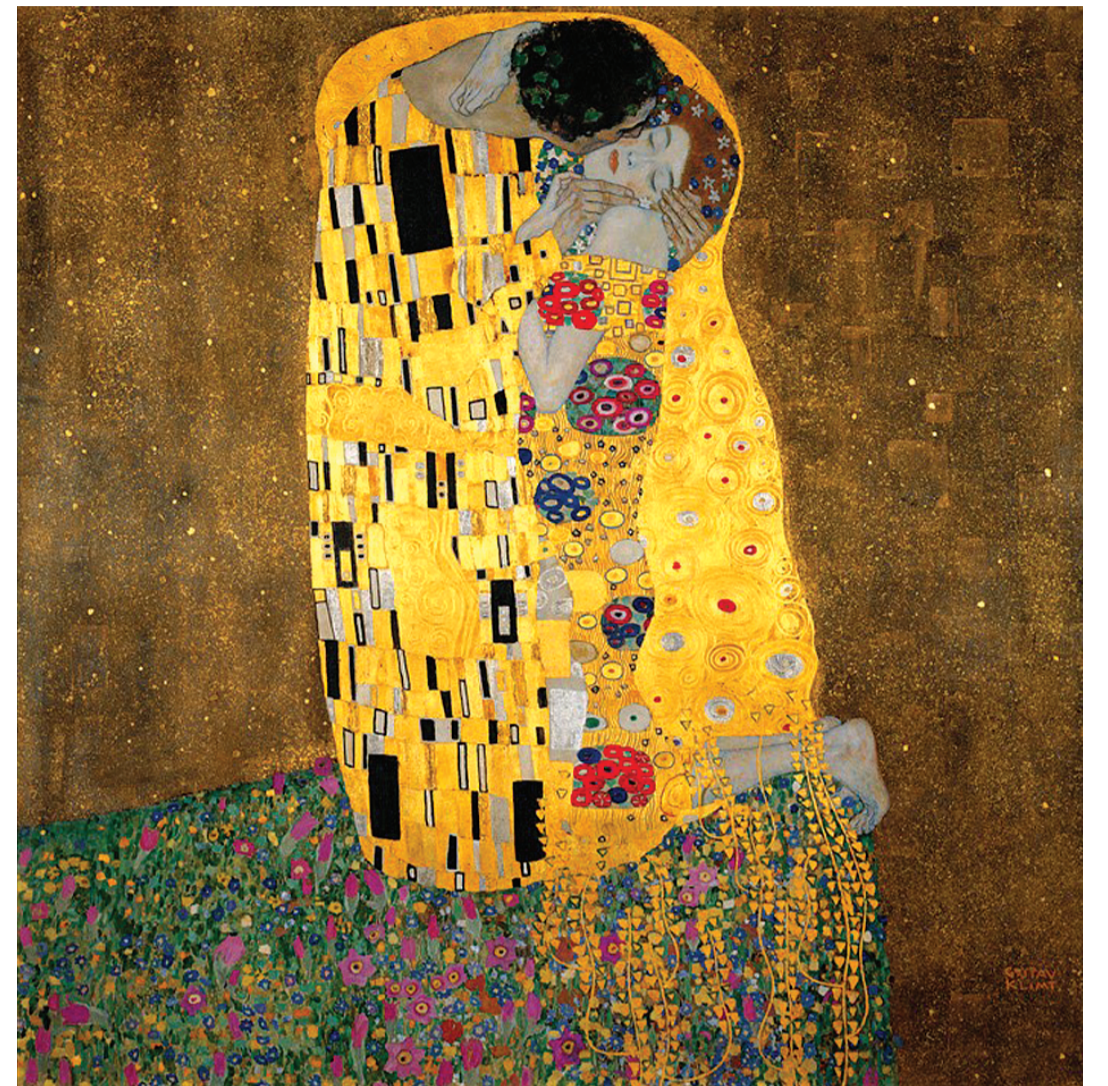
기울어가는 가세, 어머니의 함성은 예민한 감성

의 소유자였던 실레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미술만큼은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들의 간청에 따라 어머니는 그림 공부를 시킨다. 빈 미술 아카데미에 최연소로 입학한 실레는 후일 당대 최고 클림트와 동료들의 작품을 접하며 예술세계에 눈을 뜬다.

"내가의 기량과 소년의 마음이 공존했던 실레는 청년기와 성인기 당시 불안한 심리를 탁월하게 표현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성적 욕망의 발달'이라는 두 가지"를 그만큼 예리하게 다룬 작가는 없었다.

리하르트 게르스트들은 오스트리아의 반 고흐로 불리는 천재화가다. 재능이 뛰어나 새로운 작품을 남겼지만 "과묵한 성격과 무책임한 행동은 그를 비참한 끝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반골기질이 강했던 탓에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미술계에서 스스로 고립된 채 독학을 선택했는데, 후일 작곡 거장 쇤베르크를 알게 된다. 그러나 쇤베르크 아내와 불륜을 맺게 되고 점차 외로움과 불행에 빠져들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사후 1950년대 이르러 세상이 사람들이 작품이 지닌 천재성을 알게되면서 표현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된다. 이밖에 책에는 '인물의 내면부터 시대까지 한 폭의 그림에 담은 문제적 화가' 존 싱어 사전트, '고통을 이겨내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던 비극적 인생의 주인공' 프리다 칼로, '그림에 순간을 담으려 했던 가장 인상주의자다운 인상주의자' 베르트 모리조 등 천재 화가들의 삶과 예술이 담겨 있다.

〈한경arte·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스타프 클림트 작 '키스'

의역 난중일기

이순신 지음, 김종대 역어 옮김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쓴 임진왜란 당시의 7년을 기록한 역사다. 1592년 1월 1일부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기 전담인 1598년 11월 17일까지 기술하고 있다. 친필 초고는 충남 아산 현충사에 보관돼 있으며 정조 시기 '이충무공전서'를 편찬하며 편의상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붙여 일기를 수록했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상징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난중일기가 번역돼 나왔다. 그만큼 이순신의 정신을 전파하고 본받으려는 이들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이순신 전도사인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순신 생각에 가장 근접한 난중일기를 내고 싶었다. 이번에 펴낸 '의역 난중일기'는 장군의 행적과 아울러 난중일기에 대한 해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순신이 보고 쓴 임진왜란 7년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원문에 의역이 가미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수십 권 번역된 난중일기가 있지만 다르게 번역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웠다. 직접 전체 뜻을 살린 의역을 시도해 이순신의 생각을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사실 의역은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의역을 하는 이의 철학이나 사유가 반영되어야 하기에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이번 책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난중일기 원문과 함께 흥기문을 비롯해 이은상, 노승석, 최두환 등이 쓴 번역본 그리고 박기봉 편역의 '충무공 이순신 전서' (4권)를 참고해 집필했다. 해당 일기 머리 부분에 매해, 매달 장군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술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가디언·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B2: 베테 앤 베테

박찬호·이태일 지음



올해처럼 프로야구에 대한 팬들의 사랑이 깊었던 적이 있었을까. 2024년 한국 프로야구는 '기록의 해'로 기록될 정도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정규리그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1088만7705명)을 기록하며 역대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으며, 720경기 중 221경기 매진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광주를 연고지로 둔 KIA 타이거즈는 홈 관중 최다(125만 9249명), 통산 12회 최다 우승, 한국시리즈 진출 불패 신화, 타이거즈 선수 출신으로 우승 이끈 첫 사령탑(이범호 감독)이라는 타이틀에 이어 내야수 김도영은 리그 최초 월간 10-10 클럽, 최연소·최소 경기 30-30 클럽,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 등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야구의 흥행 때문일까. 매년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야구라는 세계의 정수를 온전히 담은 책 'B2: 베테 앤 베테'가 출간됐다. '코리아 특급' 박찬호와 당대 최고의 스포츠 기자이자 전 NC 다이노스 사장인 이태일이 1년간 대담하며 엮은 책이다.

'위대한 선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수), '야구는 사람이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자' (감독), '스위트홈 없이 성공하는 야구는 없다' (구단), '상상하는 능력 없이 지켜지지 않는 곳' (리그),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 반지' (팬), '야구 산업으로 함께 성장시키는 그들이 있다' (파트너) 등 6개의 파트로 나눠 야구의 모든 것을 망라한다.

메이저리그 명감독, 월드클래스 동료들과 함께한 박찬호의 에피소드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이태일의 NC 다이노스 창단 이야기, 유소년 육성법과 국가대표 시스템, 구단 운영과 스카우트, 스포츠브릿지, 좋은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현명한 방법, 고도화된 스포츠 마케팅과 미디어 환경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지외인·2만2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어린 것들의 거대한 세계

대나 스태프 지음, 주민아 옮김



양 날개를 펼치고 활공하는 새부터 물결을 가르는 해양생물까지- 지구는 다종다양한 생물들이 펼치는 '살아있는 드라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 그 주인공을 '성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생물이 온전히 성장할 때 본 모습을 갖추는 경우가 많기에 울렁이보다 개구리를, 달걀보다 닭을 완전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상존한다.

그러나 17년을 기다려 매미로 변신하는 번데기부터 긴꼬리 단풍초의 동지에 탁란해 기생하는 천인조까지 '유년 시절'이 더 스펙타클한 동물들도 많다. 완전체가 되기 위해 다사다난한 시절을 감내하는 이들의 유년시절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해양생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대나 스태프가 펴낸 '어린 것들의 거대한 세계'는 지구를 완성하는 어린 동물들의 놀라운 생존법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새끼 오징어를 연구해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무척추동물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사이언스', '노틸러스' 등 과학 매체에 꾸준히 글을 기고했다.

"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학적 산물 중 하나다 정말이지 믿기 힘들 정도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거의 완벽한 패키지라고 할 만 하다." 책은 '알'을 비롯해 성년에 이르지 못한 다양한 존재들에 주목한다. 포란과 부화, 임신을 비롯해 유생, 번데기와 우화 등 생물종의 변천사와 관련된 인접 개념들도 짚어본다. 아울러 바다 생물에 편형동물, 망아지와 새끼 오리 등 흥미로운 예시들도 제시된다. 저자의 주 연구 분야인 새끼 오징어의 발생 단계에서 관측되는 '파라리비' (오징어와 문어를 위해 저자가 만든 용어) 등을 활용, 두족류의 초기 발생 단계 등을 소개한다.

〈위즈덤하우스·2만2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자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